

# 장수군, 선별 진료소 추가 설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확산 방지 위한 자발적 검사 독려

장수군에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되면서 군은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장계와 계남, 천천, 산사에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사자 중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중 3명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을 통한 확진자 중 2명은 관내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인되면서 군은 어린이집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폐쇄 조치했다.

어린이집 교사 및 원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다.

장수군은 현재 장수보건의료원, 장수

군청광장, 장계시장, 계남문예복지관 등 4개소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일 오후부터는 산서면사무소와 천천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되면서 장수보건의료원, 장계시장, 계남문예복지관, 산서면사무소, 천천시장·계남문예복지관은 12일 9~18시, 산서면사무소·천천보건지소는 12일 13~18시까지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의사, 간호사, 행정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장수보건의료원선별진료소는 8~19시, 장계시장·계남문예복지관은 12일 9~18시, 산서면사무소·천천보건지소는 12일 13~18시까지 운영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1일 기준 총 6,260여명의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군은 상황 안정 시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까지 강화하고 장수·장계시장 등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물 44개소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장영수 군수는 "가족과 지인과의 만남을 비롯한 방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건강한 일상과 안전한 장수를 되찾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임 및 관내·외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수군은 온 행정력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국토부·기재부·행안부 방문 예산안 반영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

지역이나, 예산 부족으로 대절도,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이로 인해 도로 비탈면 붕괴와 급커브 구간의 설계속도(80~70km/hr)보다 미달된 최소곡선반경과 완화곡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진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소대정 터널개설 타당성조사(기존 도로 문제점 분석)자료를 통하여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시작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사업은 총연장 L=2.98km(교량 334m/4개소, 터널 L=1,587m/2개소), 사업비 685억원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군은 현재 진행중인 기재부 일괄 예타 통과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최종 반영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정우철 재난경감과장과 면담을 갖고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부귀면 황금저수지 마을 진입도로 일원이 급경사지로 붕괴 우려가 있고, 해방기와 우기철 도로면 압식 절리현상 및 낙석 발생으로 인해 주민,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 생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은 물론 도로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원주 소양 구간의 도로 개량(터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주민생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군, 국내육성 여름 딸기 실증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동부산악권 고랭지 기후 조건을 이용한 고품질의 여름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품종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랭지 기후 조건에 적합한 특새소득 작물 딸기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다.

군은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4,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들여 무풍면 일원에 2,000㎡ 가량의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도 여름딸기 정식 후 병해충 방제요령을 지도하는 한편 개화기 수정 관리와 PLS 기준(농약허용 기준) 이행을 점검해 품질 좋은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무주 고랭지 지역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인 여름딸기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품종 실증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확대 추진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시설물 점검

진안군은 12일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진안소방서와 함께 물놀이 안전시설물 사전 점검에 나섰다.

군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하천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을 사전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인기 피서지인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인 운일암 반일암과 섬바위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가졌다.

이곳에서 유실된 안전시설물을 확인하고 설치된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규설치 장소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진안을 가막천과 풍혈천 등 총 7곳에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홍삼축제 '하이브리드 축제' 로

### 사전 컨설팅 통해 준비 시작 알려

진안군은 12일 2021 진안홍삼축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축제' 로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꾸준한 확산세 속에 성

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12일에는 진안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문화관광산업연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으며, 축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안군민의 독

자적이고 차별화된 주제 발굴 및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첫 하이브리드 축제가 열릴 때 따라 기존 비대면 축제 추진 이슈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운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컨설팅의 핵심이다.

사전 컨설팅 결과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진안홍삼 골든벨, 홍삼음식 주제 체험관, 진안홍삼 홍보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연 등을 유튜브 생중계 및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대표 프로그램인 진안홍삼댄스는 사전접수를 통해 제한된 인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통해 2021 진안홍삼축제는 온라인 프로그램(9월~10월)과 코로나 발생 추이를 살피며 오프라인 프로그램(10월 8일~10일)으로 개최하고, 기존 추진 중인 프로그램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여기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 성지 무주입니다!"

### 차량용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변경

무주군이 차량용 내비게이션 안내(지역경계) 멘트를 기존 "여기는 국제적 관광도시 무주군입니다!"에서 "여기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성지 무주입니다!"와 "여기는 태권

도 성지 무주입니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썬패스의 이블린'과 '썬링크웨어의 아이나비'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의해 기존의 안내 멘트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무주가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의 고장임을 알리고 전 세계 210개국 1억 5,000만 태권도인들의 수련과 소통, 화합의 장인 태권도원이 있는 태권도 성지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금천마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시범 육성

장수군이 마을단위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반암면 금천마을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시범마을로 육성한다.

이번 마을 육성은 지난해 장수읍 교촌마을에 이은 두 번째다.

12일 군에 따르면 시범마을에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재해예방 종합관리 지원과 마을자체 추진 역량 강화를 목표로 농업인에게 노출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민 안전을 도모한다.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며, 전통분무기, 예취기 안전보호구 세트 등의 안전장비 및 보조구를 30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주민 위생요인 제거 개선을 위해 모정 옆 낭떠러지 추락사고 예방용 안전울타리 및 교통사고 예방용 도로반사경,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여름철 농한기부터 10월까지 마을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응급사고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